



2002년 7월 5일, 부러 16시간이라는 긴 비행 끝에 스페인 바로셀로나에 도착했다. 도착한 것은 밤 11시가 넘은 시각. 공항에서 14차 세계 에이즈 컨퍼런스 스칼라쉽 담당자를 만나 1시간 여를 기다려 버스를 타고는 숙소를 향했다. 2년전 13차 학술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처음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을 방문할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새롭다는 느낌과 함께 그냥 왠지 모르게 준비에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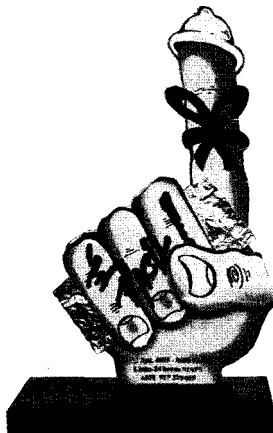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에이즈 회의 세계로의 발걸음



2002년 7월 5일, 부러 16시간이라는 긴 비행 끝에 스페인 바로셀로나에 도착했다. 도착한 것은 밤 11시가 넘은 시각. 공항에서 14차 세계 에이즈 컨퍼런스 스칼라쉽 담당자를 만나 1시간 여를 기다려 버스를 타고는 숙소를 향했다. 2년전 13차 학술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처음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을 방문할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새롭다는 느낌과 함께 그냥 왠지 모르게 준비에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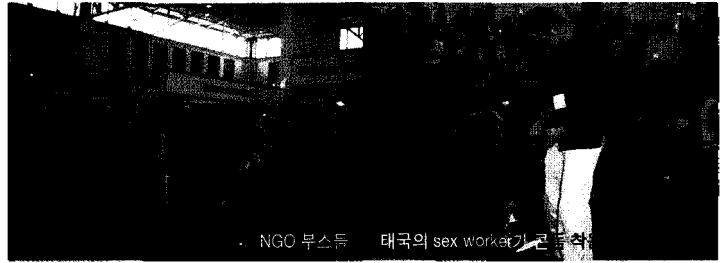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셔틀버스도 없고 마땅한 지식도 없어서 몇번을 물어 물어 기차를 타고 행사장에 도착했다. 첫날이라 그런지 아직은 행사장 여기저기가 좀 한산해 보였다.

대충 둘러보고는 집에 들어가려는 기차역에서 우연히 한국인분들을 만났다. 적십자사에서 오신 분들로 이미 일면식이 있던 터라 쉽게 어울렸다. 같이 버스로 바로셀로나 관광을 하고 식사를 하였다. 200년 전에 설계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가우디의 작품들을 보면서 감탄을 했다.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저녁 늦게 숙소로 돌아오니 반가운 사람이 있었다. 식수가 없어 불과 음료수를 사러 들른 가게에서 2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만났던 대만 친구를 만난 것이다. 간단히 서로의 안부를 묻고는 너무 피곤하여 다음날을 기약했다.



에이즈 예방은 콘돔으로 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전시물

부스를 돌면서 2년전 만났던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 너무 반가워했다. 가끔 건강이 안좋아졌거나 이미 사망을 해서 오지 못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을때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다.



>> 에이즈에 대한 각 분야의 많은 관심과 열정들

다음날 본격적으로 행사장을 다니면서 각종 에이즈 관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PWA(에이즈 감염인)그룹들도 만나면서 서로 각각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을 듣고 정보를 공유했다. 같은 감염인이기 때문인지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각국의 NGO부스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감염인에게 다가가고 또 어떻게 예방, 홍보를 하는지 알아도 보고 팜플렛과 포스터 등을 하나씩 모아왔다.

그 나라의 특색이 물씬 풍겨나는 그들만의 팜플렛과 소식지는 내겐 너무나 소중한 자료들이었다. 한국내에서의 포스터 전시회를 위해 많은 포스터들을 챙겼고 또 우리의 취지를 알게 된 부스에서 스스로 더 많은 자료들을 주고는 하였다. 또 제약회사의 부스에서는 지금 어떻게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으며 또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은 제약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으니 조만간 치료제가 개발될 것 같다.

행사장내의 많은 룸에서는 각각의 주제를 가진 많은 워크숍들이 열렸으며 또 지역별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서로 상호협조하면서 에이즈 예방은 물론이거니와 감염인들의 인권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들도 눈에 띄었다. 특히 일본 관계자로부터 내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본의 고베에서 있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행사에 초청을 받고 또 우리 감염인 식구들도 함께 초청해준다는 얘기에 매우 기뻐했다. 일본에서는 리브포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하나의 부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스를 돌면서 2년전 만났던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 너무 반가워했

다. 가끔 건강이 안좋아졌거나 이미 사망을 해서 오지 못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을때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다. 제약회사의 부스에서는 ACT UP 이라는 감염인 단체에서 부스를 점령하면서 에이즈 약값을 인하하라는 구호와 함께 호루라기를 불던 모습은 너무나 도전적으로 다가왔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한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카메라를 향해 소리 높혀 에이즈 치료제 가격을 내리라는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의 절규였다. 또 태국의 섹스워커는 센터 한 가운데에서 남자 한 명을 불러내어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바나나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콘돔을 착용하는 방법을 시연하기도 하여 큰 갈채를 받았다. 에이즈 하나로 인하여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에이즈의 심각성을 다시 실감했다.

>> 에이즈가 진정 우리 일로 여겨지는 날

빌클린턴, 넬슨 만델라 등 많은 인사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도 한 흑인여성 감염인이 마이크를 잡고 치료를 받게 해달라, 또 인권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이즈는 어느 한 특정인이나 특정 국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임을 다시 느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국제적인 큰 행사에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사를 국내에서 한다면 어떨까 생각해봤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사유치를 반대할 것 같다. 에이즈를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박광서 감염인 단체 리브포원 대표